

[실무수습기-헌법재판소 실무수습]

## 살아있는 헌법의 체험

### 홍 소 연

- 과천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생



### I. 시작하며

헌법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느낌 때문인지, 헌법은 제게 참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시절에는 공법보다 사법에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비교·분석할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서, 추상적이었던 헌법이 조금씩 구체화되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스쿨에 와서는 공법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는데, 특히 제1회 공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과분하게도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모집공고를 보았을 때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방학 중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실무수습을 다녀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의 경우, 작년까지는 한번에 1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수습프로그램도 다소 느슨하게 진행되어, 실무수습을 경험한 선배들이 아쉬움을 많이 느꼈

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상 인원을 대폭 줄이고, 프로그램의 내실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녀오고 나니, 다녀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소송의 전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지원여부를 두고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용기를 내어 후기를 작성해 봅니다. 글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II. 선발 절차

### 1. 실무수습의 시기 및 인원

2013년 겨울 동계 실무수습의 경우 총 2회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각 기수별 선발인원은 40명씩이었습니다.

제1기 : 2013. 1. 7.(월) ~ 1. 18.(금)

제2기 : 2013. 2. 14.(목) ~ 2. 27.(수)

저는 제2기 실무수습생으로 다녀왔습니다.

### 2. 선발 절차 및 지원 자격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의 선발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지원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여 헌법재판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선발기준 및 인원을 각 학교에 제시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실무수습생을 선발하여 헌법재판소에 통보하고, 이후 실무수습생으로 확정됩니다. 선발인원은 각 학교별 정원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별 선발인원을 배정하는데, 저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수별로 2명씩, 총 4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법과목의 이수여부와 성적 등이 선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Ⅲ. 수습절차의 시작

수습생 교육은 광화문 소재 헌법재판연구원<sup>1)</sup>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원은 청계천 바로 앞의 예금보험공사빌딩에 입주해 있는데, 정부기관이라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내부 온도가 18도로 통제되었습니다. 올 겨울의 유난히 매서웠던 한파 때문에 매우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장도 자유로이 입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요 등 난방을 위한 개인물품을 소지하고 편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추위를 잘 극복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습생 등록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출입증을 배부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습기간 내내 출입증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헌법재판연구원원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 후에 수습기간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최신 주요결정 분석' 등 여러 권의 책과 자료 들을 한가득 배부받습니다. 따라서 따로 교재 등을 준비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후 실제소송기록만 반환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본인 소유가 됩니다.

수료기간 중의 일정을 시간단위로 기록한 상세 시간표가 배부되고, 실제로 이 시간표대로 매우 타이트하게 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 Ⅳ. 실무수습 내용

편의상 교육의 내용을 구분하여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종합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 1. 이론 교육

헌법 및 헌법소송의 기초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대강당에 수습생 전체가 모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연구관님들로부터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

1) 헌법재판연구원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입니다.

### (1) 이론 수업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확정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 등의 주제에 대하여, 각 주제별로 한시간 가량씩 배정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 (2) 헌법소송의 쟁점별 이해

① 위헌법률심판, 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③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④ 권한쟁의 심판 각각의 헌법소송의 쟁점별로 소송 요건, 내용, 주요사례 등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빠른 시간에 헌법소송의 주요한 내용들을 훑어봄으로써 각 소송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3) 헌법 재판의 심사기준

헌법 재판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이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질문부터 헌법재판의 심사구조와 관련한 세세한 내용까지, 강의의 해 주신 팀장님께서 헌법과 관련된 전 방위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습생들이 진땀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체계 질문이 오지 않을까 긴장하며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질문을 받고 헌법을 세삼 되뇌어보고, 헌법 중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을 위한 공부에만 익숙해져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가치를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 반성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 2. 헌법재판실무

헌법재판의 실무와 관련된 교육은 수습생들이 10명씩 나누어져 반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습생들이 각 반별 지도교수이신 헌법연구관님께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교육은 주로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이 매우 고되어 수습이 끝나면 매일 녹초가 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의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경미 헌법연구관님의 반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젊은 여성으로서 육

아와 사회생활을 열정적으로 병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수업을 통해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받은 것 이외에도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직역 자체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 (1) 사례 연구

위헌법률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세가지 주요 헌법재판에 관한 사례를 실제 당해 소송기록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대상사건인 2008 헌바89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소송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문, 검사의 의견서, 관계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 등 당해 사건과 관련한 소송기록들을 검토해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는 방식으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요 유형별 대표사례 한 개씩에 대하여 실제 소송기록을 살펴본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토해봄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해결 과정을 되짚어 보고, 결정문에 담긴 고민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 (2)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 (3회)

실제 사례를 각색한 모의기록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록 검토 및 작성방법에 대한 간단한 수업을 받은 후, 약 3시간 동안 기록을 검토하고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제공받은 노트에 직접 수기로 작성 했습니다. 하루에 1차례씩, 총 3일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송기록을 읽다보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어진 시간 보다 빨리 작성하면 이른 퇴근이 가능했지만, 대다수의 수습생들이 마감시한을 꼭 채워 작성하는 등 쓸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소송기록을 읽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기록을 미리 검토하는 등, 대다수의 수습생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구서 작성을 통해 적법성과 관련한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 특히 유익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적법성 구비여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안에 어떻게 포섭시켜야 하는지, 분량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날에는 적법성 요건의 작성에만 한 시간 넘게 할애해서 본안 판단이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였는데, 추후 많이 개선됨을 느꼈습니다.

제출했던 청구서 및 답변서 총 3종은 모두 담당 헌법연구관님께서 첨삭을 해주셨습니다. 형식적 오류에 대한 지적은 물론,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본안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가감하면 좋은지, 주장 요소들 간에 논리적 모순관계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첨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작성한 후에 내 답안의 부족한 부분을 다음날 바로 확인하고, 서경미 헌법재판연구관님의 강평을 들으며 목차별로 모범답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형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3개의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빈 종이에 현출해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았습니다. 청구서 및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고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실무수습의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 (3) 연구보고서 작성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연습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이었다면, 연구보고서 작성은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 헌법소송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면, 헌법재판연구원들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보고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합헌'과 '위헌'이 될 수 있는 모든 견해에 대하여 중립적인 시각에서 작성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합헌 또는 위헌에 이를 수 있는 각 견해별로 관련된 이론적 내용 등을 담게 됩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은 각 반별로 2개의 팀, 즉 위헌론 팀과 합헌론 팀으로 나뉘어져 각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실무수습의 마지막 날 팀별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한 후 함께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팀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속팀원들과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 3. 법조선배와의 대화

김정원 헌법재판연구원 선임부장연구관님께서 법조선배이자 인생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관님의 인생사에 대한 질문부터,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두루 체험하신 법조인으로서 양 지역의 차이에 대한 물음, 헌법재판연구원 채용에 대한 질문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못해도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는가를 질문했는데,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만, 헌법연구관은 해외 유학의 기회도 주어지고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관련분야의 연구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외국어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4. 헌법재판소 견학

그간의 수습이 헌법재판의 내용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외형을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체로 버스를 타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담당직원분의 안내 하에 견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V. 마치면서

수습생들에 대한 관심과 환대가 곳곳에서 느껴졌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사무관님들께서 수습생들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주셨습니다. IT 강의실이 개방되어 있어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비록 가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도서관도 개방해주셨습니다. 휴게실도 개방되어 차, 커피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수습생들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에도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더 편안하게 수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책과 자료를 가득 안고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실무제요'와 '최신 주요결정 분석' 이외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용으로 따로 간행한 책자이었던 등, 일각에 들리던 소문들과 달리 로스쿨 실무수습에 헌법재판소에서 쏟는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교재의 내용 또한 매우 훌륭해서 앞으로도 계속 소중하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 실무수습은 수습의 말미에 수습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매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제1기 실무수습생들이 건의사항들이 제2기 실무수습에 반영되었으며, 기수당 100명이었던 실무수습인원이 기존 수료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0명으로 축소되는 등 매년 더 나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학생으로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가서 정시에 출퇴근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빠듯한 일정에 쫓겨 수습생들 간에 충분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온 것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수습생들 대다수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의미있고 중요한 결정과 관련한 실제 소송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고, 좋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남는 것이 많은, 기억에 오래 남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